

## 경기문화재단, 국내 최대 규모 아트 레지던시 경기창작센터 개관

2009년 10월 20일 (화) 17:06:07

정훈영 기자 [✉ hyj@kohoilbo.co.kr](mailto:hyj@kohoilbo.co.kr)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옛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부지면적 5만4천545㎡, 건물면적 1만6천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레지던시인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올해와 내년까지 2차에 걸친 리모델링을 거쳐 창작 스튜디오를 비롯한 전시실, 작품창고, 공방, 숙소 등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 7개 동 중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컨버전스동과 레지던스동, 작품창고동을 새롭게 꾸몄다.

내년에는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일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대규모 시설을 갖춘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아트레지던시' 기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앞으로 세계적인 작가와 큐레이터, 미술이론가, 인문학자들을 초청, 작품에 대한 비평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작품창고 프로그램, 예술공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프로그램, 지역협력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작품창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창작센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작가 16명, 외국작가 8명 등 총 24명의 국내·외 작가들을 초대해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창작센터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권미원 교수, 우테 메타 바우어 전 카셀도큐멘타 공동큐레이터, 안빌렘 슈로퍼 라익스아카데미 관장 등 미술계 주요 인사 대거 참여하는 2009 레즈아티스 컨퍼런스를 진행, 국내 대표 아트레지던시로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